

##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al Beliefs, Efficacy and Stress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이화여자대학교 인간생활환경 연구소  
연구원 안 지 영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교수 박성연

Human Ecology & Environmental Institute, Ewha Wamans Univ.

Researcher : Ahn, Jee Young

Dept. of Consumer Science & Human Development, Ewha Wamans Univ.

Prof. : Park, Seong Yeon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이론적 배경 | 참고문헌        |
| III. 연구 방법 |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parental beliefs, efficacy and stress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The subjects were 243 mothers of two to three-year-old children in Seoul.

The main results showed that parental beliefs, efficacy and stress were significantly related with parenting behaviors. That is,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parental efficacy, beliefs and stress were significant variables predicting mother's parenting behavior. However, the predictive powers of these variables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parenting behavior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al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s was mediated by mother's parental efficacy. To conclude, mother's cognitions such as parental beliefs, parental efficacy, and a perception of parenting stress turned out to be the vital factors in predicting parenting behaviors.

**주제어(Key Words):** 양육 신념(parenting beliefs), 양육 효능감(parenting efficacy), 양육 스트레스(parenting stress), 양육 행동(parenting behavior)

## I. 서론

우리 사회에서 부모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은 곧 자녀를 훌륭한 대학에 보내는 것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자녀 양육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자녀의 성적 문제'가 지적되는 것(권이중, 1988; 김영화, 1992)을 볼 때, 자녀 양육에서 학업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 양육에서 학업이 강조되는 성향은 이미 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이전의 어린 시기부터 조기 교육이나 영재 교육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사회적 질서나 공중도덕의 사회화에 대해서는 다른 선진국의 어머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다(한국 궤립조사연구소, 1980).

이와 같은 자녀교육 현상은 가족 이기주의나 출세 지향주의와 같은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가치관 및 문화적 배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본다(김영화, 1992). 이처럼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관은 자녀 양육에서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부모의 역할은 어떤 것이라고 여기는지와 같은 부모의 양육 신념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양육 행동과 밀접한 관련을 나타내게 된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신념이 부모의 행동 및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정하에, 국외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부모의 인지적 특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즉, 단순히 양육 행동 자체를 연구하기보다 부모가 자녀 양육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모의 양육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Miller, 1988). 이와 같이 양육 행동에 선행하는 변인으로서 부모의 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자들은 부모를 주변의 사건을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라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조직하고 결정하는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igel, 1985). 특히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는 영역 중의 하나는 '신념'에 관한 내용으로, '부모의 신념 → 행동'이라는 개념적인 틀(McGillicuddy-De Lisi, 1985; Sigel, 1985) 안에서 부모의 인지적 특성을 행동적 특성과 함께 연구하는 경향이다. 그 결과, 아동 발달 전반에 대해

가지는 목표나 가치관 등 다양한 인지적 내용을 포함하는 부모의 신념은 자녀의 발달에서 양육 행동 자체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강조되고 있다(Goodnow, 1988; Miller, 1988).

한편, 양육 신념 이외에도, 부모의 인지적 특성 가운데 하나인 양육 효능감이나 양육 스트레스 역시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으로 중요시되고 있다. 자신이 부모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로 정의되는 양육 효능감은 어머니의 인지와 행동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예를 들어 부모의 지각된 양육 효능감이 높을수록 보다 적절하고 융통성이 있으며 일관된 양육 행동을 한다고 보고된다(Mondell & Tyler, 1981; 문혁준, 1999). 또한 Abidin(1992)과 Lazarus와 Folkman(1984)에 의하면, 자녀 양육에서 겪는 스트레스 경험은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 자체보다 사건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부모의 인지적 측면(cognitive appraisal)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여,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영향을 주는 데 있어 인지적 변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어머니의 인지적 평가과정을 통해 측정된 양육 스트레스는 역기능적이고 거부적인 양육 행동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bidin, 1990; 박응임, 1995).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의 양육 행동을 연구함에 있어 개인의 가치와 목표 등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양육 신념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인 양육 효능감, 그리고 인지적 평가에 의해 그 수준이 달라지는 양육 스트레스와 같은 개인의 인지적 측면의 역할이 고려되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루어진 양육 행동 연구들에서 신념에 관한 몇몇 연구를 찾아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부모의 인지적인 특성에 대한 관심에 비해 경험적인 연구는 그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2~3세 연령의 걸음마기는 영아기와는 달리 자율성과 자아개념, 일상생활에서의 자조능력이 급속히 발달함에 따라 부모는 보호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어 자녀 양육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다고 알려지고 있다(Gross, Conrad, Fogg

& Wothke, 1994).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발달 단계에 비해 걸음마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 대한 연구는 드물어, 이들이 어떤 양육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양육에 대해 어느 정도 어려워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2~3세의 자녀를 둔 젊은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양육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인지적 요인으로서 자녀 양육에 대한 신념과, 양육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 변인과 양육 행동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나아가 양육 신념과 효능감, 스트레스가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양육 행동을 설명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인지적 관점에서 양육 행동을 이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양육 신념과 양육 효능감,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 변인을 중심으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양육 신념과 양육 행동

지금까지 부모의 양육 행동에 관한 연구는 주로 외현적인 부모의 행동과 자녀의 발달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나,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는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으로서는 부모의 심리적 구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Goodnow, 1988; Sigel, 1985). 그 중에서도 양육 신념은 부모에게 자녀 발달에 대한 이해나 목표에 대한 개념적인 틀을 제공하고, 부모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근원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인지적 변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McGillicuddy-De Lisi, 1985). 즉, 부모의 양육 신념에 따라 자녀에 대한 기대가 달라지고, 자녀의 발달을 위한 양육 행동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며 그 결과 자녀의 발달에 다른 영향을 주게 된다(Goodnow, 1988).

부모의 신념에는 발달에 대한 지식(Stevens, 1984), 부모의 역할(Luster & Rhoades, 1989), 자녀

교육의 목표 및 중시하는 가치(Okagaki & Sternberg, 1993; Segal, 1985), 또는 자녀의 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Stevenson, Chen & Uttal, 1990)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는데, 부모의 신념과 양육 행동간의 관계는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 예를 들어 Luster와 Rhoades(1989)에 의하면, 자녀의 발달에 부모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들은 민감한 양육 행동을 하는 대신 훈육은 강조하지 않는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력에 대한 지식을 어머니가 많이 가질수록 긍정적인 양육 행동을 보인다(Stevens, 1984)고 한다. 이외에도, 자녀의 인지 발달이나 학습 방식에 대한 부모의 신념 역시 양육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다. 즉, 아이들은 환경을 탐색하고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학습한다고 믿는 부모들은 질문을 통해 자녀에게 생각하는 기회를 주는 등, 거리를 두는 양육 방법(distancing strategies)을 사용하며(McGillicuddy-De Lisi, 1985), 자녀를 능동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부모는 자녀의 인지적 표상 수준을 신장시키는 양육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igel, 1985).

비교 문화적 연구에 의하면, 중국이나 일본의 부모들은 미국 부모에 비해 노력이 타고난 능력보다 성취에 더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며, 부모를 자녀의 발달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자녀를 위해 보다 많은 것을 해주려는 양육 행동을 한다(Stevenson, Chen & Uttal, 1990). 결국 지금까지 이루어진 신념과 양육 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자녀 발달에 대한 기대나 목표, 발달에 대한 지식, 부모 역할에 대한 가치 등의 부모의 양육 신념은 실제 양육 행동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진 양육 신념에 관한 연구는 여러 가지 내용의 신념중 특히 '자녀 교육관'을 중심으로 한 것이 주류를 이룬다. 이들에 의하면, 지식 중심의 학업을 강조하는 성인 중심적인 교육관을 가진 어머니들은 통제적인 양육 태도를 나타내며(이원영, 1983), 유아 중심적인 교육관을 가질수록 민주, 자율적인 양육 태도를 갖는 경향을 보

인다(이정희, 1986).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와는 달리, 아동 중심적 교육관일수록 과보호나 적극적 참여를 하거나 또는 권위주의적인 양육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며(김성옥, 1994), 자녀 교육관과 실제 양육 행동은 유의한 상관이 거의 없다는 결과(전인옥, 이인옥, 1999)도 있다. 또한, 신념의 내용에 따라라도 다른 결과를 보여, 전통적 가치관을 가질수록 애정, 합리적인 지도와 함께 권위주의적 통제도 많이 사용하는 상반된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김지신, 1996).

이상과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어머니의 자녀 양육관과 양육 태도 또는 행동간의 관계가 주로 연구되었으나 비일관적인 결과로 나타나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힘들다. 이러한 불일치한 결과는 대상 아동의 연령이나 측정되는 양육 신념의 개념이나 내용이 연구마다 차이가 있는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신념의 내용이 어떤 양육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 또는 신념과 양육 행동간의 관계가 과연 일관적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 규명해야 할 것이다.

McGillicuddy-De Lisi(1985)에 의하면, 양육 신념은 문화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자녀 양육에 반영하여 우선 순위와 목표를 정하며 그에 따라 자녀 양육의 성공을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주장을 고려할 때,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학력 위주의 분위기는 자녀 양육에 대한 신념 내용과 관련지어 해석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리 나라 어머니들은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을 갖기 원하는데 비해, 시민 정신이나 공정성, 실용성 등의 측면은 소홀하게 여기는 특성이 있다고 보고되며(한국 궤립조사연구소, 1980), 어린 연령에서부터 학업과 연관된 발달에 대해 높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영화, 1992; 우남희, 현은자, 이종희, 1992; 장은경, 박은혜, 김희진, 1998; 현은강, 공인숙, 김영주, 이민정, 1997). 이로 보아 우리 나라 어머니들은 성적을 강조하는 신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기 과외 교육에 열심히 참여하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성공적인 자녀 양육으로 생각하리라 가정된

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경험적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며, 특히 영·유아를 둔 젊은 어머니들의 자녀 양육 신념이나 행동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신념의 내용 가운데 학업 위주의 자녀 양육 양상을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어머니들이 특히 자녀의 발달 목표로서 인성과 지적 성취 중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지, 그리고 자녀의 발달에 대한 영향력으로서 성숙과 환경 중에서 어떤 면을 더 중시하는지에 대한 신념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양육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양육 효능감과 양육 행동

양육 행동을 이해하려는 시도로서 부모의 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양육 효능감에 대한 연구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양육 효능감은 Bandura의 'self-efficacy 이론'(1986)에 그 배경을 두고 있는데, 자녀 양육과 연관된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해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Johnston & Mash, 1989; 신숙재, 1997에서 재인용)과, 자녀 발달에 대해 부모 자신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로 정의할 수 있다(Luster & Kain, 1987).

양육 효능감과 연관된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효능감이 높을수록 상황에 따라 보다 적절하고, 융통성 있으며 일관된 양육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며(Mondell & Tyler, 1981; 문혁준, 1999), 어머니의 효능감은 자녀의 효능감 발달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한다(우희정, 1993). 따라서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인 양육 효능감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이나 양육 행동에 영향을 주고, 어머니의 효능감은 나아가 자녀의 발달 측면에까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2~3세의 걸음마기는 발달적으로 어머니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에서 새로운 타협이 요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걸음마기 유아를 둔 어머니들은 양육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Gross et al., 1989:

1994), 이에 따라 어머니로서의 자신감 또는 효능감이 감소된다고 보고하고 있다(Kutzner, 1985; Gross et al., 1989에서 재인용). 그러나 아직까지 영·유아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효능감과 양육 행동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자녀의 발달 단계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 효능감과 양육 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3.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행동

Abidin(1992)의 '스트레스 모델'에 의하면,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은 양육 행동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이다(Abidin, 1992; Crnic & Greenberg, 1990). 부모-자녀 관계의 특성상 자녀와의 생활은 하루의 일과로 반복되어 어머니에게 성가심이나 짜증,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지각되는데, 이와 같은 '일상적 스트레스'는 '주요 생활 사건'의 경험보다 오히려 주요한 스트레스의 근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된다(Crnic & Booth, 1991; Crnic & Acevedo, 1995).

이러한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의 심리적인 복지감은 물론, 자녀에 대한 태도나 자녀와의 상호 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적응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예를 들어, Dumas(1986)와 Patterson(1983)은 부모가 사소한 스트레스들을 경험하면 자녀에게 짜증을 많이 내고, 이것은 다시 아동의 공격적 반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한다(Crnic & Acevedo, 1995에서 재인용). 또한,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약화시켜 역기능적이고 부당한 양육 행동을 하게되며(Abidin, 1992; 박응임, 1995), 어머니가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거부·권위주의적인 양육 행동을 하게된다(박성연, 전춘애, 한세영, 1996; 신숙재, 1997).

한편, 양육 스트레스 수준은 자녀의 발달 시기에 따라 달라서 2~3세 연령의 어머니가 4~5세의 어머니에 비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되

어(Crnic & Booth, 1991; 유우영, 최진아, 이숙, 1998), 걸음마기는 다른 시기에 비해 어머니의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상태이다.

### 4.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와 양육 행동간의 관계

Abidin(1992)은 Belsky(1984)의 '가족과정(family process) 모델'에서 부모의 인지적 측면이 간과되었다고 지적하고, 부모 내면의 인지적 평가 체계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양육 스트레스 모형'을 제시하였다. 즉, 부모는 내적 실행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가지고 있는데, 양육 과정에서 부모가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와 여러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정도가 그 상황에서의 부모 행동을 결정하게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모의 신념 체계나 인지의 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부모의 효능감은 대처 자원으로서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행동간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Abidin의 모델에 기초하여 부모의 신념이나 효능감에 대한 관련 변인이나 또는, 이러한 변인들과 양육 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양육 신념, 효능감, 스트레스의 세 변인이 어떤 관계를 가지며, 양육 행동에 직접, 간접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양육 스트레스 및 효능감과 양육 행동에 대한 몇몇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양육 효능감은 양육 스트레스나 자녀의 기질로 인한 양육 어려움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를 들어, Teti와 Gelfand(1991)는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은 사회적 지원이나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매개한다고 하였으며, 신숙재(1997)는 스트레스가 많고 사회적 지원이 적을수록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이 낮았고 그 결과 더 강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Brody와 동료들(1999)에 의하면 특히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은 자녀의 발달 목표에 대한 양육 신념을 유의하게 예측하며, 이러한 양육 신념은 자녀의 능력을 증진시키는 양육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Brody, Flore & Gibson, 1999). 그러나, 전인옥과 이경옥(1999)의 결과에서는 어머니가 아동 중심적이고 성숙주의 교육 신념을 가진 경우 양육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성인 중심적이고 행동주의 교육 신념을 가진 경우에는 양육 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여, 양육 신념과 효능감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데 비해, 양육 신념과 양육 효능감은 양육 행동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양육 신념과 양육 효능감 및 스트레스 등 인지적 변인은 각각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며, 양육 신념과 효능감,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의 세 변인을 다룬 연구도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신념, 양육 효능감,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행동간의 관계 및 그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해 보고, 양육 효능감이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지를 검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 신념, 양육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 행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 신념, 양육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은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행동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만 15개월~45개월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243명의 어머니들이며, 서울 및 신도시 지역에서 표집하였다. 연구 대상자 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135명(55.6%), 여아가 108명(44.4%)이었고 평균 월령은 30.3개월이었다.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대졸이상이 59.3%로 높은 편이며, 월 평균 수입은 60.5%의 가정이 15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에 속하고 있어 교육 수준 및 수입의 분포(통계청, 2000)에 근거해 볼 때 본 연구의 대상은 중류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2. 측정 도구

##### 1) 어머니의 양육 신념

양육 신념 척도는 아동 양육 목표와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신념 내용으로 한정하여 구성하였다. 양육의 목표는 인성 강조와 지적 성취 강조 신념으로 구분하였으며 자녀의 발달에 대한 영향력으로서 성숙주의 신념과 환경주의 신념으로 구분하였다. 신념 척도의 문항 구성을 위해, 본 연구자가 실시한 개방적 면접 자료에 근거하여 개발한 문항들과 이원영(1983)의 '자녀 교육관', 김지신(1996)의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Segal(1985)의 'Maternal Beliefs and Values Q-sort' 및 선행 연구들(Luster & Rhoades, 1989; Okagaki & Sternberg, 1993; Sameroff & Feil, 1985)을 참고로 32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Eigen치와 Scree test를 통해 2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 두 요인에는 21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어머니의 양육 신념 척도의 제 1요인은 '인성/지적 성취강조' 요인으로 명명되었으며, '인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자녀의 성격, 사회성, 소질 등을 중시하는 내용이며, '지적 성취'를 강조하는 입장은 공부, 경쟁, 사회에서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으로 12문항이 포함된다. 양육 신념의 제 2요인은 '성숙주의/환경주의' 요인으로서, 어머니가 자녀의 발달에 대해 '성숙' 또는 '환경'의 영향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와 관련된 내용의 9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본 척도는 7점 척도로서 중간점수인 3.5를 중심으로 하여, 점수가 낮을수록 '인성'을 강조하고 '성숙주의'에 가까우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적 성취'를

강조하고 '환경주의' 신념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양육 신념 척도의 신뢰도는 '인성/지적 성취강조' 요인은  $\alpha=.82$ , '성숙주의/환경주의' 요인은  $\alpha=.71$ 로 나타났다.

#### 2)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의 측정은 Floyd, Gilliom과 Costigan(1998)의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령기 자녀용 총 29문항으로 구성되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문화나 본 연구의 대상 아동의 연령에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15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Likert 식 4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부모 노릇은 내가 이전에 생각한 것 보다 어렵지 않다", "부모로서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등의 문항을 들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alpha=.73$ 이다.

#### 3)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Crnic과 Greenberg(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s'의 문항을 번안 수

정하여 사용하였다. 원래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예비 조사를 통하여 신뢰도가 낮아 적절치 못한 2문항을 제외하고 18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Likert 식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 생활에서 자녀 양육과 연관되어 일어나는 일들을 어머니가 성가시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가 어질러 놓은 장난감이나 음식물을 계속 치워야 한다", "아이가 집안 일을 하는데 끊임없이 걸리적거린다"의 문항이 포함되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체 18문항의 신뢰도는  $\alpha=.89$ 이다.

#### 4) 어머니의 양육 행동

어머니 양육 행동은 자녀의 발달 영역관련 양육 행동과 일반적 양육 행동의 두 가지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일반적 양육행동 외에 발달영역 관련 양육행동 척도도 사용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양육 신념내용에 자녀의 발달목표로서 '인성/지적 성취 강조'에 관한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자녀의 발달에서 어떤 영역을 강조하는 양육 행동을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발달 영역 관련 양육 행동': 자녀의 신체, 인지, 사회, 정서 영역에 대한 양육 행동으로 구성된

〈표 1〉 연구 변인들의 문항수 신뢰도, 평균, 표준 편차 및 점수범위

(N=243)

변 인	문항수	신뢰도	평균	표준편차	점수범위
양육 신념					
인성/지적 성취강조	12	.82	2.44	0.90	1~7
성숙/환경 주의	9	.71	4.35	0.97	1~7
양육 효능감	15	.73	2.50	0.33	1~4
양육 스트레스	18	.89	2.72	0.60	1~5
양육 행동					
A. 발달영역 관련 (25)					
신체 발달관련	8	.73	2.98	0.40	1~4
인지 발달관련	8	.76	2.85	0.40	1~4
사회정서 발달관련	9	.82	3.25	0.36	1~4
B. 일반적 양육 행동(25)					
적극적 참여	8	.76	2.82	0.35	1~4
자율 격려	8	.73	2.63	0.39	1~4
방임적 허용	6	.69	1.94	0.41	1~4
통제	3	.61	2.47	0.49	1~4

Lawton, Schuler, Fowell과 Madsen(1984)의 'Parenting Behavior Q-sort' 문항을 사용하였다. 원래는 2~6세 대상의 7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2~3세의 자녀에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31문항을 선택하여 문장을 다소 수정하였고, 신뢰도 분석을 거쳐 총 25문항을 선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25문항 가운데 8문항은 '신체 발달관련' (예: "아이에게 밖에서 노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려고 애쓴다")에 해당되며, '인지 발달관련'에는 8문항(예: "아이에게 교육적으로 유익하다는 장난감을 많이 마련해 준다"), '사회정서 발달관련'에는 9문항(예: "아이가 여럿이 노는 놀이에 참가하도록 격려한다", "아이에게 매일 뽀뽀하고 안아주어 애정을 표현한다")이 포함된다. 본 척도는 Likert 식 4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각 발달 영역과 관련되는 양육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며, 각 영역의 신뢰도는  $\alpha=.73\sim.82$ 로 나타났다.

**'일반적 양육 행동'**: 대부분의 양육 행동 척도들은 학동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2~3세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 연구들(Roberts, Block & Block, 1984; 임희수, 1994)을 근거로 이 연령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독립심의 격려', '성취 강조', '통제 지시', '적극적 참여'와 '허용' 등 5개 범주를 선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41문항으로 일반적 양육행동 척도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 검사와 요인 분석을 거쳐 본 조사에서는 '적극적 참여'(8문항), '자율 격려'(8문항), '방임적 허용'(6문항), '통제'(3문항)의 4개 요인으로 명명된 총 25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Likert식 4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각각의 양육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요인의 신뢰도는  $\alpha=.61\sim.76$ 로 나타났다(〈표 1〉 참조).

###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양육 신념 측정 도구의 개발을 위해 10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60명과 30명의 어머니를 대상으

로 두 차례의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고, 문항 수정과 부적절한 문항들을 제외하는 과정을 거쳐 본 조사를 위한 척도를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2000년 8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2~3세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신도시 지역에서 실시하였다. 아동학 전공의 대학원생들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지역의 놀이방 또는 어린이집에 의뢰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4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342부가 회수되었고, 미완성이거나 부적절한 설문지 36부를 제외하였으며, 대상을 중류층으로 제한하여 총 243부의 설문지를 분석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 자료의 분석은 SPSS PC program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Pearson의 적률 상관관계, t 검증, 일원변량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와 양육 행동간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와 양육 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에 나타난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양육 신념과 양육 행동간의 관계는 '인성/지적 성취강조' 신념과 사회정서 발달관련, 자율 격려와는 부적으로, 방임적 허용과는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자녀에게 지적 성취를 강조하는 신념을 가질수록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과 관련되는 양육 행동이나 자율을 격려하는 양육 행동을 덜 하며, 방임적으로 허용하는 양육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다. '성숙/환경주의' 신념과 양육 행동간의 관계는 자율 격려, 방임적 허용과 유의한 부적 관계로 나타나, 어머니가 자녀의 발달에 대해 성숙주의 신념을 가질수록 자율을 격려하는 양육 행동을 더 하고, 방임적으로 허용하는 양육 행동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과 양육 행동간의 관



〈표 2〉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와 양육 행동간의 상관관계

(N=243)

	인성/지적성취강조 신념	성숙/환경주의 신념	양육 효능감	양육 스트레스
발달영역 관련 양육 행동				
신체 발달관련	-.10	-.01	.27***	-.24***
인지 발달관련	.00	-.05	.32***	-.16***
사회정서 발달관련	-.21**	.08	.23***	-.28***
일반적 양육 행동				
적극적 참여	.04	.01	.32***	-.18**
자율 격려	-.13*	-.24***	.36***	-.24***
방임적 허용	.24***	-.16*	-.04	.24***
통제	.00	.13	-.18**	.20**

\*p&lt;.05, \*\*p&lt;.01, \*\*\*p&lt;.001

계를 살펴보면, 방임적 허용을 제외한 모든 양육 행동과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여 신체, 인지, 사회정서 발달관련 양육 행동 및 적극적 참여, 자율 격려와는 정적으로, 통제와는 부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즉,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신체, 인지, 사회정서 발달 등 모든 영역에 해당하는 양육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율을 격려하는 양육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이 낮을수록 거부 통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었다.

양육 스트레스는 신체, 인지, 사회정서 발달관련 양육 행동 및 적극적 참여, 자율 격려 양육 행동과는 모두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나타낸 한편, 방임적 허용, 통제 양육 행동과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즉,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의 신체, 인지, 사회정서 발달과 관련된 양육 행동을 덜 하고 적극적인 참여나 자율을 격려하는 양육 행동도 덜 하는 반면, 방임적으로 허용하거나 거부 통제적인 양육 행동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어머니의 양육 신념, 양육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양육 신념과 효능감, 스트레스의 변인들이 각 양육 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종속 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독립변인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회귀 분석의 1단계에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투입하고, 2단계로 양육 신념, 양육 효능감, 양육 스트레스 변인을 투입하였다.<sup>1)</sup> 또한, 양육 행동 변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자녀의 성별' 변인은 회귀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발달관련 양육 행동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3〉에서 보듯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신체 발달관련'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은 10%이었고,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 변인은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beta=21, p<.01$ )이며, 다음으로 양육 스트레스( $\beta=-.14, p<.05$ )가 유의하였다. '인지 발달관련'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순수한 설명력은 10%이며 양육 효능감( $\beta=.30, p<.001$ )의 설명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인지발달과 관련된 양육 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한편, '사회정서 발달관련'에 대한 양육 신념, 효능감과 스트레스 변인의 순수한 설명력은 12%이며, 어머니의 인성/지적 성취강조 신념( $\beta=-.22, p<.01$ ), 양육 스트레스( $\beta=-.18, p<.05$ ), 양육 효

1) 양육 신념, 효능감, 스트레스의 각 변인들간의 상관계수는 .14( $p<.05$ )~.39( $p<.001$ )의 범위에 있었고, 분산팽창요인(VIF)계수는 1.1~1.2 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표 3〉 발달관련 양육 행동에 대한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의 회귀분석 (N=243)

	신체 발달관련 양육 행동				인지 발달관련 양육 행동				사회정서 발달관련 양육 행동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자녀 월령	-.01	-.16*	-.01	-.18*	-.00	-.05	-.00	-.06	-.01	-.12	-.01	-.16*
출생 순위	-.05	-.11	-.03	-.06	-.04	-.09	-.02	-.04	.01	.03	.00	.00
어머니 연령	-.00	-.01	-.00	-.03	-.02	-.11	-.02	-.15*	-.01	-.09	-.01	-.11
교육 수준	-.01	-.03	.00	.01	.04	.10	.05	.13*	-.03	-.09	-.00	-.01
취업 여부	-.09	.11	.02	.03	.08	.11	.04	.04	.08	.11	.00	.01
양육 신념												
인성/지적성취강조			-.05	-.11			-.02	-.04			-.09	-.22**
성숙/환경주의			.00	.00			.03	.08			.03	.09
양육 효능감			.25	.21**			.36	.30***			.18	.17*
양육 스트레스			-.09	-.14*			-.02	-.02			-.11	-.18*
회귀상수	3.33		3.15		3.28		2.43		3.85		3.81	
F (df)	2.65*(5, 237)		4.44*** (9, 233)		2.70*(5, 237)		4.65*** (9, 233)		2.25(5, 237)		5.40*** (9, 233)	
R <sup>2</sup>	.05		.15		.05		.15		.05		.17	

\*p<.05, \*\*p<.01, \*\*\*p<.001

〈표 4〉 일반적 양육 행동에 대한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의 회귀분석 (N=243)

	적극적 참여				자율격려				방임적 허용				통제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자녀 월령	-.00	-.09	-.00	-.09	-.00	-.01	-.00	-.02	-.00	-.06	-.00	-.02	.01	.09	.01	.09
출생 순위	-.02	-.05	.01	.02	-.04	-.09	-.01	-.03	-.02	-.05	.03	-.06	.08	.15*	.06	.11
어머니 연령	-.02	-.14*	-.02	-.18*	.00	.01	-.00	-.02	.02	.14	.00	.14*	-.00	-.01	-.00	-.00
교육 수준	.01	.02	.01	.04	-.00	-.01	-.01	-.04	.04	.10	.00	.00	-.05	-.09	-.04	-.09
취업 여부	.02	.03	-.03	-.04	.06	.07	-.02	-.02	-.02	-.03	.04	.05	-.12	-.13*	-.07	-.07
양육 신념																
인성/지적성취강조			.01	.02			-.04	-.08			.10	.22**			-.00	-.00
성숙/환경주의			.00	.01			-.10	-.25***			-.07	-.16*			.05	.11
양육 효능감			.32	.30***			.37	.32***			.03	.02			-.13	-.09
양육스트레스			-.05	-.08			-.08	-.12			.15	.22**			.13	.16*
회귀상수	3.46		2.86		2.62		2.63		1.31		0.93		2.48		2.15	
F (df)	2.00(5,237)		4.54*** (9,233)		.59(5,237)		7.22*** (9,233)		1.74(5,237)		4.45*** (9,233)		3.02*(5,237)		3.19** (9,233)	
R <sup>2</sup>	.04		.15		.01		.22		.04		.15		.06		.11	

\*p<.05, \*\*p<.01, \*\*\*p<.001

능감( $\beta=.17$ ,  $p<.05$ )의 순서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가 인성을 강조하는 신념을 가질수록, 양육 스트레스를 적게 느낄수록, 양육 효능감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과 관련된 양육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 양육 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4〉에서 보듯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적극적 참여' 행동을 설명하는 변인으로는 양육 효능감( $\beta=.30$ ,  $p<.001$ )이 유의하게 나타나,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발달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양육 행동을 한다. '자율 격려'에 대해서는 효능감( $\beta=.32, p<.001$ )과 성숙/환경주의 신념( $\beta=-.25, p<.001$ )이 유의한 설명력을 보여,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발달에 대해 성숙주의 신념을 가질수록 자녀의 자율을 격려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변인들이 '자율 격려' 행동을 설명하는 변량은 21%이다. 한편, '방임적 허용'에 대한 독립 변인들의 설명력은 11%이었으며 양육 스트레스( $\beta=.22, p<.01$ )와 인성/지적 성취 강조 신념( $\beta=.22, p<.01$ ), 그리고 성숙/환경주의 신념( $\beta=-.16, p<.05$ )의 순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지적 성취를 강조하는 신념을 가질수록, 자녀 발달에 대해 성숙주의 신념을 가질수록 자녀 양육에서 방임적으로 내버려두는 양육 행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통제'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은 5%이며, 양육 스트레스( $\beta=.16, p<.05$ )만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 양육에서 통제적인 양육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양육 효능감의 매개 효과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이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행동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가

정하였다.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양육 효능감과 양육 스트레스간에는  $r=-.39(p<.001)$ 의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며, 이 두 변인과 방임적 허용을 제외한 신체, 인지, 사회정서 발달관련, 적극적 참여, 자율 격려, 통제적 양육 행동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방임적 허용 양육 행동을 제외한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대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분석 방식대로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독립변인으로 먼저 양육 스트레스를 투입하여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다음 단계로 양육 효능감을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 양육 스트레스의 설명력이 감소하는지를 분석하는 2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5>에서 보듯이 양육 스트레스가 인지발달관련, 적극적 참여, 자율 격려 각 양육 행동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은 양육 효능감을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 더 이상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양육 효능감은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행동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고 있다. 그러나, 신체 발달관련 양육 행동의 경우에는 양육 효능감을 투입하였을 때 스트레스의 영향력은 그 유의도가  $\beta=-.24(p<.001)$ 에서  $\beta=-.16(p<.05)$ 으로 감소하여, 스트레스가 신체 발달관련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양육 효능감은 부분적인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정서 발달관련과 통제 양육 행동에 대해서는 양육 효능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양육 효능감의 매개 효과

(N=243)

	신체 발달관련		인지 발달관련		적극적 참여		자율 격려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beta$	$\beta$	$\beta$	$\beta$	$\beta$	$\beta$	$\beta$	$\beta$
양육 스트레스	-.24***	-.16*	-.16*	-.04	-.18**	-.07	-.24**	-.12
양육 효능감		.21**		.30***		.29***		.32***
회귀상수	3.41	2.63	3.13	2.01	3.11	2.17	3.05	1.92
F	14.83***	12.79***	5.94*	13.42***	8.37**	13.96***	14.68***	20.03***
(df)	(1,241)	(2,240)	(1,241)	(2,240)	(1,241)	(2,240)	(1,241)	(2,240)
R <sup>2</sup>	.06***	.10***	.02*	.10***	.03**	.10**	.06***	.14***

\*  $p<.05$ , \*\*  $p<.01$ , \*\*\* $p<.001$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 대한 신념과 효능감 그리고 일상적 스트레스 등의 인지적 측면이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러한 변인들이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 신념은 양육 행동과 대체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들이 지적 성취를 강조하는 신념을 가질수록 사회정서 발달관련 양육 행동이나 자율을 격려하는 양육 행동을 덜 하며, 방임적으로 허용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지적 성취를 강조하는 어머니들은 2~3세 연령에서 중요시되는 사회정서 발달을 위한 양육 행동에 관심이 적고, 일정한 규칙이나 제한 설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지 않는 방임적인 양육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자녀 발달에 관한 신념이 성숙주의에 가까울수록 더 자율성을 격려하는 한편, 방임적으로 허용하는 양육 행동을 나타내었다. 즉, 자녀가 스스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습하도록 자율을 격려하는 한편, 부모가 가르치고 바로 잡아주어야 하는 행동도 방임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자녀의 발달이 타고난 능력에 의해 이루어지며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라는 어머니의 성숙주의 신념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환경적 영향력을 중시하는 신념을 가질수록 어머니가 인지 발달관련 행동이나 적극적 참여, 통제 등의 양육 행동을 더 많이 할 것이라는 가정과는 달리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가 환경적 영향에 관한 신념을 가질수록 자녀의 발달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선행연구 결과(Stevens, 1984)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의 자녀가 2~3세인 점을 고려할 때, 지적 성취를 강조하거나 환경적 영향

을 강조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직 어린 연령이므로 양육 행동에 뚜렷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는 어머니들의 신념과 같은 추상적 가치는 실제적 양육 행동과의 관련이 적을 수 있어, 바람직한 양육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에게 유익한지 인지하고는 있지만, 자녀와의 실생활에서는 그대로 실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신념과 양육 행동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어머니의 신념과 행동간의 관계가 보고되기도 하고(Brody et al., 1999; 김지신, 1996; 이정희, 1986), 자녀 교육관과 양육 행동간에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어(이원영, 1983; 전인옥, 이인옥, 1999) 비 일관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인성/지적 성취강조 신념이나 성숙/환경주의 신념이 사회정서 발달관련 양육 행동이나 자율 격려, 방임적 허용 등의 양육 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난 결과는 신념이 실제 부모 행동의 근원이라고 보는 선행 연구들(Goodnow, 1988; McGillicuddy-De Lisi & Sigel, 1995; Miller, 1988; Sigel, 1985)의 주장을 지지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신념의 내용이나 양육 행동의 차원에 따라 신념과 행동간의 연관성이 다를 수 있음을 볼 때,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자녀의 발달에 대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여기는지 등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내용의 신념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설명하는 작업이 더욱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양육 효능감은 양육 행동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신체, 인지, 사회정서 발달관련에 해당하는 양육 행동을 더 강조하였으며,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자율을 격려하는 행동을 하는 반면에, 통제적인 양육 행동을 덜 하였다. 이같은 결과는 양육 효능감이 높을수록 어머니는 자녀 양육에서 긍정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며(Gross et al., 1994; 문혁준, 1999; 우희정, 1993), 어머니의 효능감이 낮은 경우에 더 훈육을 강조하거나 강압적인 양육 행동을 한다는 결과(Luster & Kain, 1987; 신숙재, 1997)

와 일치하는 것이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이 낮은 경우에 어머니 자신과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을 갖게 되고, 나아가 부모-자녀관계나 자녀의 발달에도 영향을 주며,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이라는 연구(Gross et al., 1994)를 고려해 볼 때,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양육 행동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지금까지 남편의 지원이 어머니의 효능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보고가 있는데(신숙재, 1997), 이외에도 양육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기타 선행 변인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세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 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나 긍정적인 양육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 행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며, 양육 행동에서 강압적이고 명령이나 비난을 많이 사용한다는 선행 연구들(Cmic & Acevedo, 1995; 박성연 외, 1996; 박응임, 1995; 신숙재, 1997)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본 연구 대상의 자녀인 2~3세 연령은 발달 특성상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은 낮고 스트레스는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Gross et al., 1994; 유우영 외, 1998). 따라서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겪는 일상적 스트레스의 감소를 위해, 나아가 바람직한 양육 행동을 위해서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된 선행변인에 대한 연구 역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와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였으나, 사실상 우리 나라 어머니들은 학업 위주의 자녀교육 현상을 따라가는 데만 급급해서 발달에 대한 이해나 자녀 양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지 못한 채 아이를 기르고 있어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어머니들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양육 스트레스의 특성을 밝히는 연구도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네째, 어머니의 인지적 변인인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된 후에도 양육 행동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 양육에서 양육 신념이 양육 행동보다 더 중요한 변인이라는 '부모의 신념 → 행동'의 개념적인 틀(McGillicuddy-De Lisi, 1985; Sigel, 1985)과, 양육 행동의 선행 변인으로서 부모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한 Abidin(1992)의 모형을 지지한다.

다섯째,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은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 효능감은 대처자원으로서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행동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Abidin(1992)의 모델이나, 이에 관한 선행 연구(Cutrona & Troutman, 1986; Teti & Gelfand, 1991; 신숙재, 1997)를 지지하는 내용이다.

종합해보면 어머니의 양육 신념과 효능감,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와 같은 어머니의 인지적 변인은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설명하는 유용한 개념으로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편,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 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양육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또한, 양육 행동의 영역에 따라 양육 신념과 효능감, 스트레스의 상대적 기여도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2~3세의 연령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인지적 특성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젊은 어머니들의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근거로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자기보고(self-report)식의 질문지를 통해 어머니의 인지적 측면과 함께 실제 양육 행동을 측정할 점과 더불어 몇몇 양육행동의 경우 신뢰도가 다소 낮아 제한점을 지닌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자녀의 연령은 평균 30.3개월임에도, 36개월 이상이 23%여서 해당유아의 연령범위가 다소 넓다. 그럼에도 표집수의 제한으로 연령을 따로 구분하여 보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따라서 대체로 지속적인 성격을 지니는 부모의 신념도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변화될 수도 있으므로, 앞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신념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

- 권이중(1988). 한국 부모의 자녀 교육관 및 양육 태도 조사연구. 서울: 계몽아동 연구소.
- 김성옥(1994). 어머니의 자녀 양육관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화(1992). 학부모의 교육열: 사회계층간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30(4), 173-197.
- 김지신(1996).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양육 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혁준(1999).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 효능감이 자녀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6), 97-107.
- 박성연, 도현심, 정승원(1996). 부모-자녀관계 -생태학적 접근-. 서울: 학지사.
- 박성연, 전춘애, 한세영(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따른 양육 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203-215.
- 박응임(1995). 영아-어머니간 애착 유형과 그 관련 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우남희, 현은자, 이종희(1992). 사설학원과 가정 중심의 조기교육 실태 연구. *유아교육연구*, 13, 49-64.
- 우희정(1993). 가정 환경과 아동의 자기-효능감 간의 인과모형 탐색.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우영, 최진아, 이숙(199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51-61.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 태도와 유아 발달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희(1986). 어머니가 지각한 결혼만족도 및 자녀 교육관과 양육 태도와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희수(1994). 첫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 행동 및 관련 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은경, 박은혜, 김희진(1998). 만 3세아 발달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기대. *대한가정학회지*, 36(4), 137-146.
- 전인옥, 이경옥(1999). 유아의 자기 효능감에 대한 인과모형 탐색: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교육신념과 양육에 대한 자기 효능감, 양육행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19(1), 169-187.
- 통계청(2000). 도시가계조사. 서울: 통계청
-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0). 한국의 아동과 어머니, 제 1권. 서울: 행동과학연구소.
- 현은강, 공인숙, 김영주, 이민정 (1997). 유아 학습지의 현황 및 인식도. *아동학회지*, 18(2), 67-93.
- Abidin, R. P.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Th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1-412.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rody, G. H., Flore D. L., & Gibson. N. M. (1999). Linking maternal efficacy beliefs, developmental goals,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 competence in rural single-parent African American families.

- Child Development*, 70(5), 1197-1208.
- Crnic, K. A. & Acevedo, M. (1995). Everyday stresses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4, (pp.277-297).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rnic, K. A. & Booth, C. L. (1991).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daily hassles of parenting across early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042-1050.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Cutrona C. E. & Troutman, B. R. (1986).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efficacy: A mediational 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507-1518.
- Floyd, F., Gilliom, L. A., & Costigan, C. L. (1998). Marriage and the parenting alliance; Longitudinal prediction of change in parenting perceptions an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9(5), 1461-1479.
- Goodnow, J. J. (1988). Parents' ideas actions and feelings. *Child Development*, 59, 286-320.
- Gross, D., Rocissano, L., & Roncoli, M. (1989). Maternal confidence during toddlerhood: Comparing preterm and fullterm group.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2, 1-9.
- Gross, D., Conrad, B., Fogg, L., & Wothke, W. (1994). A longitudinal model of maternal self-efficacy, depression, and difficult temperament during toddlerhood.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7, 207-215
- Lawton, J. T., Schuler, S. G., Fowell, N., & Madsen, M. K. (1984). Parents' perceptions of actual and ideal child-rearing practice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5, 76-87.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proces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5, 102-113.
- Luster, T. & Kain, E. L. (1987). The relation between family context and perceptions of parental efficacy.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9, 301-311.
- Luster, T. & Rhoades, K. (1989). The relation between child rearing-beliefs and the home environment in a sample of adolescent mothers. *Family Relations*, 38, 317-322.
- McGillicuddy-De Lisi, A. V. (1985).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beliefs and children's cognitive level, In I, E, Sigel (Eds.)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pp.7-24).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cGillicuddy-De Lisi, A. V., & Sigel, I. E. (1995). Parental beliefs.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4, (pp.333-358).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iller, S. A. (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 259-285.
- Mondell, S. & Tyler, F. B. (1981). Parental competence and styles of problem-solving/ play behavior with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7, 73-78.
- Okagaki, L. & Sternberg, R. J. (1993). Parental beliefs and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64, 36-56.
- Roberts, G. C., Block, J. H., & Block, J. (1984). Continuity and change in parent's child-rearing practices. *Child Development*, 55, 586-597.
- Sameroff, A. & Feil, L. (1985) Parental concepts of development, In I. E. Sigel (Ed.).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pp.83-10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egal, M., (1985). A study of maternal beliefs and

- values within the context of an intervention program. In I. E. Sigel (Ed.).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pp.271-28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igel, I. E. (1985). A conceptual analysis of beliefs. In I. E. Sigel(Ed.).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pp345-371).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tevens, J. H. Jr. (1984). Child development knowledge and parenting skills. *Family Relations*, 33, 237-244.
- Stevenson, H. W., Chen, C. M., & Uttal, D. H. (1990). Beliefs and achievement: A study of Black, White, and Hispanic children. *Child Development*, 51, 508-523
- Teti, D.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Mediatl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